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5월 22일 부활 6주일 · 다해 · 백색

제57-20호

부활 - 회복하신 사랑의 능력

(요한 14:23-29)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성찰할때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죽음은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죽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다른 이를 향한 미움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 생명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탓으로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동료 인간들과 다른 피조물을 수단으로 여겨 착취하고 미워하던 비참함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부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수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신 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장담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신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

어날 일을 대비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실제로 일이 닥치자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목격하면서 오래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맺었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회복 불가능했던 하느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혼돈과 불안을 느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좀처럼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매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염려하셔서 수난 받으시기 전부터 미리 위로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함께 곧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협조자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회복하신 사랑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간구해야겠습니다.

(구균하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 장 김종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부활절기 전례 안내

부활절기 전례곡은 B곡 시편곡조는 앵글리칸 찬트(성가 49장)입니다. 부활절기 주일 전례에서는 니케아신경을 외웁니다(기도서 249쪽, 성가 76장).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성가책을 지참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절기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승천대축일 - 다음 주일

다음 주일(5월 29일)은 승천대축일(5월 26일에서 이동)로 지킵니다.

4. 성령강림대축일(6월 5일) 빨간 드레스 코드

오는 6월 5일은 성령강림대축일이며, 부활절기의 완성일입니다. 성령의 내리심을 기억하고, 부활과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을 축하하며, 교우 모두 빨간색 장식과 옷차림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 알림

1. 교구 설립 감사성찬례와 성직 서품식

5월 27일(금, 오후 2시)에는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서울교구 설립 57주년 기념 성찬례와 부제 서품식이 있습니다. 서울교구 선교의 뜻을 새롭게 다짐하고, 부제 서품 후보자 정근재 라파엘 전도사(동두천 나눔의 집)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제 서품 기념일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서품 기념일 5월 24일

3. 구역장·인도자 수요 헌신 예배

지난 구역장 인도자 전체 모임의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25일(수) 오전 11시에 성전에서 전체 모임과 헌신 예배를 엽니다. 구역 교우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6월 교회위원회

6월 5일(주일) 11시 성찬례 후 성전

■ 활동단체 소식

◆ 활동 단체 모임

나오미회 - 5월 22일(오늘) 11시 성찬례 후 나오미 방
안드레회 - 5월 29일(다음주일) 11시 성찬례 후 베드로회방

◆ 성가대 - 남성 성가대원 모집

남성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돕는 봉헌

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문의: 성가대장 조혜순 아가타 010-2318-3381)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고사리 주문 1봉 2만6천원 - 옛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인환(23일) 안성일(25일) 이정숙(26일)

◆ 혼배 공시 ◆

신랑: 김정태(베네딕트) 김종희·김예중의 아들
신부: 최원이(드보라) 최호용·임경림의 딸
2022년 5월 28일(토) 낮 12시 서울주교좌성당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곽순연 김복자 김영혜 김용학 김종희 박영수 송미경 신명식
유인환 유희주 윤선구 이정희 이종한

■ 주정헌금

강서린 김삼홍 박남미 박소현 박주영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송미경 신희숙 유권열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이정희 이광자
이은미 이정숙 이종한 정상임 정은숙 주창남 주창순 한부순
홍성호

■ 감사헌금

박길자(건강) 박성준(아내생일/부활)
박정모(생활) 서세룡(생활) 윤영옥(평일미사)
이경찬(생활) 이광자(생활) 이은미(생활)
정은숙(생활) 진규복·최미영(생활)

■ 기타헌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나눔의집헌금 윤영자
■ 극기헌금 윤영자 무명
■ 예수사랑헌금 김용학
■ 성공회대장학금 김복자 유혜경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예수 승천일과 부활초

예수의 승천 사건은 루가복음의 결말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연결합니다. 부활 사십일째 일어난 승천은 부활의 기쁨이 사십 일의 고난(사순절)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열흘을 더해 성령강림절(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서양에서는 여러 주요 축일처럼 승천일(목요일)도 휴일이었으나, 사회의 세속화에 따라 축일을 휴일로 지내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교회는 축일 당일을 고집하지 않고 다음에 오는 주일에 지킬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승천일 전례에서는 부활초를 끄는 날로도 유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으니 부활초를 끄고 보이지 않도록 치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축일 성찬례에서 복음 독서 직후에 부활초를 끄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례 개혁으로 부활의 위대한 오십일 전통을 회복하면서, 이 관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활초는 지상을 걷는 예수의 몸만이 아니라 부활 사건 전체를 드러냅니다. 승천은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의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는 뜻이지, 우리를 떠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주일에 부활초를 끄고, 부활초를 세례대 옆으로 옮겨서 밝히고는 합니다. 이후 부활초는 세례와 장례에도 사용합니다.



구역 헌신 예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의 선포(케리그마), 성도들의 친교(코이노니아), 그리고 봉사(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 영등포 성당은 이 세 가지 사명은 구역기도모임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구역 기도 모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변화로 구역 모임에 큰 쇄신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구역장들과 인도자들은 우선, 오는 5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헌신 예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의 활성화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하느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은총과 용기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교우들도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모아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상황을 넘어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 ◆ 사회와 정치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하여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주간 평일에도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얼(캐나다)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25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91 다함께
영광송 (B곡) ✧ 246 / ♪ 75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사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사도 16:9-15 말은이
시편 시편 67편 다함께



- 1 하느님, 우리를 어여뵈 보시고, 축복을 내리소서.
○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 보여주소서.
 - 2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 하시고
○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 3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 하소서.
○ 만백성이 당신을 찬양| 하게| 하소서.
 - 4 당신께서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온 세상 백성들을 인도| 하심을,
○ 만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기리게| 하소서.
 - 5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 하소서.
○ 만백성이 당신을 찬양| 하게| 하소서.
 - 6 땅에서 오곡백과 거두|었으니
○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내리신 | 축복이| 이라.
-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2 독서(읽는다) 묵시 21:10, 22-22:5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291 / ♪ 55 말은이
복음서(선다) 요한 14:23-29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92 다함께
봉헌성가 ♪ 377장/안드레회 다함께
예물기도 ✧ 292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B곡) ✧ 257 / ♪ 77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 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270 / ♪ 78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92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561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5월 22일)		다음 주일 성찬례 (5월 29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1독서	우영현	한재업	우영현	추경민
2독서	서정민	이복련	서정민	박계자
대 도	신명식	이정숙	신명식	신환중
십자가	박해웅	이종한	윤용환	차기성
다음 주일 5월 29일	전례독서 사도1:1-11 시편 47 에페1:15-23 루가 24:44-53 성 가 입당 233장 봉헌 342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234장			
교 회 청 소	5월 28일 베드로회 고홍 박해웅 유윤근 윤용환 이성빈 이용해 이충웅 추형두		6월 4일 안드레회 1조 신환중 이종한 차기영 이성식 한재업	